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 등 수상작 10점 발표

작가정원 대상 조성희·김광자 작가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정원’ 차지

경기도는 ‘2026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최종심사에서 작가정원과 상상정원 각 5점씩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 박람회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양평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에서 ‘두물머리사:색(思索·四色)’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의 자연과 풍경을 새롭게 해석한 작가정원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담은 상상정원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정원 대상은 조성희·김광자 작가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정원’이 차지했다. 강물이 흐르고 범람하면서 변화해 온 두물머리의 자연과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왕버들숲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왕버들나무로 둘러싸인 공간에 원형 산책길을 만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사조류와 단단한 강돌로 언덕을 꾸며 변화하는 자연과 변하지 않는 자연

의 가치를 함께 표현했다. 상상정원 대상에는 이선희·류근영 작가의 ‘사색의 씨앗, 자라나는 사유’가 선정됐다. 일상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을 펼치는 모습을 정원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어느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도 정원이 펼쳐지도록 공간을 구성해 관람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원을 감상하고 사색할 수 있도록 했다.

작가정원에서는 ‘겹쳐지는 결’(황아름·김건우·강다연)이

최우수상, ‘두물양경(兩景): 다름을 품는 사색(四色)의 풍경’(김진원·양유준)이 우수상을 받았다. ‘숲속의 빈터’(이성원·김현정)와 ‘고요의 악보’(김광중·정지영)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상상정원에서는 ‘사색의 균사체’(정은경·함석연)가 최우수상, ‘운무(雲霧)속의 발목(潑墨)’(조기춘·이은영·임희수)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사색, 무계를 넘어나다’(박주화)와 ‘임상(立想)’(김도희·이두환·강혜순)은 장려상을 받았다.



▲가평 한달살기현장

이번 수상작들은 자연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생각의 확장 등 다양한 주제를 식물과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작품마다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정원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자연 속에서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수상작들은 두물머리의 자연과 정원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은 작품들”이라며 “많은 도민이 박람회를 찾아 작품마다 담긴 이야기를 느끼고, 정원이 주는 힘과 사색의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임금님표이천쌀, 2026년 수출 97.6톤 돌파

수출 연간 최대 실적... 해외 시장 경쟁력 입증

이천시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쌀이 2026년 누적 수출량 97.6톤을 기록하며, 2022년 수출 재개 이후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천시와 호법농협은 10월 16일 호법농협 미국종합처리장에서 2026년산 임금님표이천쌀 햅쌀 10톤을 호주 시드니로 수출 출고한다. 이번 수출은 올해 4월, 6월, 7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호주 수출로, 올해 수확한 2026년산 햅쌀을 호주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올해는 기존 미국과 호주 시장에 더해 일본 오사카 첫 수출까지 성사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와 해외 판로 확대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이 올해 최대 수출 실적으

로 이어지면서 임금님표이천쌀의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여기에 더해 남은 기간에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서 임금님표이천쌀에 대한 추가 수출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2026년 연간 수출 실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님표이천쌀 특유의 우수한 밥맛과 품질을 호주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대표 쌀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2022년 해외 수출 재개 이후 꾸준한 시장 개척을 통해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은 이천쌀의 우수한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천시와 농협, 농업인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기존 수출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캐나다 등 신규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 임금님표이천쌀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대표 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금님표이천쌀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충남 농작업 안전관리자, 함양군 전학

농기계 사고 예방·안전시설 개선 현장 살피

함양군은 10월 16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한 ‘농작업 안전관리자 종합 평가회’ 참석자 20여 명이 농작업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함양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충남 지역 농작업 안전 담당자와 안전관리자 등이 참여해 함양군의 농작업 재해 예방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적용한 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 사업은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

안과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사업이다.

이날 충남 농작업 안전관리자는 지역 내 농작업 안전 우수 사업장인 삼애농장(대표 노종철)을 방문해 ▲경사가 심한 과수원 입구의 농기계 전복 사고 위험 개선 ▲노후화된 전선 교체 및 스위치 표기 등 안전 시설 개선 ▲폭발 위험이 있는 유류 보관통 배리 및 작업장 환경 개선 ▲위험 경고 문구 안내문 부착 등 농작업 안전 환경 개선 추진 성과를 둘러봤다.

안전가 기자
midal0210@naver.com

순창군, 수확철 맞아 콩 선별장 운영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순창군이 본격적인 가을 콩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콩 선별장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구림면 사골길 37에 위치한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콩 선별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콩 선별장 운영은 수확한 콩의 선별 작업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력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순창군의 대표 산업인 장류 산업의 원료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콩 선별장에는 총 5대의 선별

기가 설치돼 있으며, 하루 최대 12톤(12,000kg)의 콩을 처리할 수 있어 수확철 농가의 원활한 콩 선별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콩 선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확 후 선별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의 선별기기 점검 및 정비가 진행된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졸업식 개최

친환경농학과 32명, 미래농업과 18명 졸업

보령시는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지역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2026학년도 만세보령농업대학’이 농업리더 50명을 배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는 2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엄승용 시장과 졸업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만세보령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만세보령농업대학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전문기술과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리더 1,417명을 배출했다.

올해는 기본과정인 친환경농학과 전문과정인 미래농업과 등 2개 학과를 운영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총 22회, 100시간에 걸쳐 농업 이론과 실습, 선진 농업현장 견학 등을 진행하며 교육생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친환경농학과 32명과 미래농업과 18명, 총 50명이

졸업증서를 받았다.

엄승용 시장은 “바쁜 영농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졸업의 결실을 맺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대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건강한 삶이 어우러지는 웰니스 보령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보령농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시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2026학년도 만세보령농업대학 졸업식 개최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1단계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농장 진입로 폭 2m 이상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

- 1주일 간격 반복 도포, 비·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
- 도포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제 살포 금지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 소독약은 용법용량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

- 농장 내부, 사료빈·퇴비사·출하대 주변 매일 청소·소독
-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사료·폐사축·왕겨 등) 방치 금지

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세척수·물(세척조)을 이용하여 신발(장화)에 붙은 유기물을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

※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3일 간격 교체

- 지정된 관리자 외 축사 출입 최대한 통제
- 축사 출입시 손 소독, 방역복·위생장갑·전용장화 착용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청소·소독 순서
① 청소·세척 천장→벽→바닥 순
② 건조
③ 소독약 살포
천장→벽→바닥 순

- 사람·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
-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

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